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전남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를 찾아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총리실제공

수확철 타 들어가는 농심... 전남 벼 깨씨무늬병 확산

전남 지역에 벼 깨씨무늬병이 확산하면서 수확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지난 달 말 기준 도내 벼 깨씨무늬병 발생 면적은 1만295ha 규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배, 평년보다 2.3배 늘었다.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 14만 2402ha의 7.2%에 달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같은 시점 벼 깨씨무늬병 관련 재해보험 접수 건수는 6529건에 달했다.

도내 벼 재배면적의 7.2%... 재해보험 접수 6529건
전남도, 농업재해 인정·벼 전량 매입 정부에 건의

전남도는 이달들어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시군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벼 깨씨무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과 양분 부족 등으로 벼의 잎·줄기 등에 흑갈색의 깨씨같은 무늬가 생기는 병이다. 등숙 불량과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를 유발한다.

벼 깨씨무늬병이 확산하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보성에서 벼 농사를 짓는 A(49)씨는 "심각한 상황이다. 품질 저하와 함께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병이 확산하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도 하나둘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 농민 B(85)씨는 "황금색으로 물들

어가야 할 논의 흙갈색으로 변하고 있다. 한 해 동안 흘린 구슬땀이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이 앞선다"며 안타까워 했다. 전남도는 최근 급격히 확산하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찾아 지속하는 이상고온으로 피해가 크게 늘어난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조사 뒤 복구비 지원, 깨씨무늬병 피해 벼 전량 매입을 요청했다. /기동취재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잇달아 방문해 전남 RE100 시범단지 지정, 산업위기지역 지원 연장, 벼 전염병 농업재해 인정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방문,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

김영록 지사 "깨씨무늬병 피해 벼 전량 매입을" 정부에 건의... 정부에 지역 핵심 현안·정책과제 제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광양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위기지역의 보통교부세 가산 일몰기한 연장, 여

수국가산단 중심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광양국가산단 수소환원제철 설비 전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승원 기자

특히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석유화학·철강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여수·광양산단을 대규모 공용 ESS 시범사업과 차세대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과 양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2면에 계속> /이승원 기자

광주·전남 곳곳서 가을 축제 릴레이

15일 광주 충장축제·18일 광산 세계야시장 막 올라
17~19일 순천 낙안읍성, 18~26일 장성 가을꽃축제
서창역새·함평 국향대전 등 다채로운 축제 잇따라

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자 광주·전남 곳곳에서 본격적인 가을 축제가 막을 올린다. 광주 동구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충장축제는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사랑, 모험, 소망, 상상이 가득했던 추억 속 동화를 구현한다. 날짜별로 1일 차 '개막의 날'(15일), 2일 차 '아시아 문화의 날'(16일), 3일 차 '가족의 날'(17일), 4~5일 차 '행진의 날'(18~19일) 등의 주제로 준비했다. 같은 기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는 세계 14개국 거리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2025 광주버스킹월드컵'이 펼쳐진다. 광주 광산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월곡동 고려인마을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광산 세계야시장'을 연다.

순천시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해안 순천 낙안읍성에서 '제30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를 연다. '순천 낙안읍성, 시간의 문을 열다'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600여년을 지켜온 역사성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재현한다. 전통 민속문화를 재현하는 백중놀이, 성곽 쌓기, 수문장 교대식, 가마장군 순라의식, 전통혼례, 국악, 창극 '김빈길 장군' 등을 비롯해 세미트롯, 퓨전국악, 도립국악단, 시립합창단 등 퍼포먼스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민속놀이 경연대회, 장사 씨름대회, 큰 줄다리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 및 체험 부스, 장승깨기, 농촌체험 등 읍성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성군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진행한다. '황룡강 가을 화(花)담, 빛으로 물드는 이야기 길'을 주제로 낮에는 꽃과 자연, 밤에는 빛과 예술이 있는 축제로 꾸민다. 축제장은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흥선대원군의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 문장 앞 글자를 따 문화·불빛·여유·장터·성장 등 5개 화답점으로 구성한다. 진도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목포 출신 박지현이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개그맨 이홍렬이 진행하는 '추억 극장' 코미디 공연, 가수 헤은이, 박상민의 무대도 열린다. 19일 오후 7시에는 좁비들을 피해 달리는 야간 러닝 프로그램 'J(제이)-라이트 런'도 진행한다. 함평군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마법의 국향랜드'를 주제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개최한다. 국화를 소재로 한 대형 조형물과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먹거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